

ΚΝΩΝΠΟ ΙΜΠΟΝΡΕ 박사Æ 창세기Æ 세션 ČÇÆ 요셉과 야곱의 재회Æ 창세기 ČĎÁÇĎ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Kenneth Mathews 박사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4회기, 요셉과 야곱의 재회, 창세기 46-47장입니다.

24과의 제목은 요셉과 야곱의 재회, 46장과 47장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다섯 장, 즉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46장부터 50장까지는 사실상 두 가지 결론이 합쳐진 것입니다. 37장 2절에서 시작된 요셉 이야기는 46장과 47장에서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이 연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48장부터 52장, 50장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추적한 방식을 따라왔다면 우리는 이 반복되는 표현을 여러 세대에 걸쳐 발견했으며 히브리어 표현은 톨레도스 이고 여러분의 버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의 계정이나 이야기에서. 그것은 25장에서 야곱과 에서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톨레도 표현은 37장에서 야곱, 요셉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 이야기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 즉 요셉과 야곱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두드러진 인물이며, 48장부터 50장까지의 마지막 세 장을 볼 때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세 번째 인물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결론인 유다에 등장합니다. .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다섯 장에서 축복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48장, 49장, 50장에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48장에는 요셉이 야곱에게서 얻은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야곱이 다시 야곱의 아들들에게 임종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50장과 같은 다른 곳에서는 축복이라는 개념이 용어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장을 본다면, 오늘 우리는 46장과 47장에 있는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족장들에게 축복의 성취.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반복되는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축복은 창세기 1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축복에 대한 개념을 반복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족장 가족들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책 전반에 걸쳐 발견한 내용, 즉 미래를 향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건 적절하지 않나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직계 후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의 모든 후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에 걸쳐 명시적으로 또는 미묘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지향성, 미래지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족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될 또 다른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장애물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에덴동산에서부터 50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의 문제는 야곱 가족이 걷는 세 가지 여정을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첫 번째 형제들은 42장으로 내려가고, 두 번째 여행은 43장부터 45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 자신과 그의 온 가족과 친척들의 이주인 세 번째 여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따라서 46장을 시작하면 이전 장에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폭로한 후 놀라고 불안해하는 형제들에게 평화를 허락하고 화해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돌아와서 야곱에게 자신의 생존과 야곱이 이주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리도록 파견합니다.

그래서 45장 28절 끝에서 요셉은 마침내 믿었고,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로부터 확신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전에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동의하고 여기 마지막에 내 아들 조셉이 아직 살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그를 만나러 갈 것이다. 그러면 4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이집트로의 이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약 400년 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민족의 계속되는 이야기를 위해 이집트로의 이주를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까지 온갖 문제를 안고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 1장을 듣거나 돌릴 수 있다면 창세기 결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에 대한 역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5절에는 야곱의 자손이 모두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여기에 1장 28절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찼더라. 그러다가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혈통은 1절부터 7절까지 시작됩니다. 1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반복될 것입니다. 즉, 그의 가문의 후손 전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모아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포괄적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그의 가족의 생존은 포괄적입니다. 그 아들의 후손이나 그 아들 중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주님 앞에 경배하려고 멈춰 섰습니다. 내 생각에 그 여정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28장에서 밤 꿈의 사건, 즉 하늘에서 땅까지 뻗어 있는 사다리의 환상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벰엘이라 하였더라. 28장에는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벰엘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 3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이야기에서 설명하듯이 팻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땅 밖입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의 북동쪽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로 이사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가 벰엘에서 남쪽으로 족장들의 거주지,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야곱과 함께 헤브론이 그들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헤브론에서 더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내려가면 브엘세바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모세의 스다 시대 의 경우임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시내 산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할 수 없다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여기 Jacob과 함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26장 2절에서 이삭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 기근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국가인 그랄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 머물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네가 형통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 환상 속에 있습니다(2절).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Here I Am이 이전 이야기에서 당신의 머리 속에 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22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곧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도록 그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임무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에 대한 큰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약속의 아들이신 이 특별한 분은 그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거기서 인간 제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 아들에게 칼을 찌르려고 할 때 여호와와 사자가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Jacob이 응답할 때 그 반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장의 다른 경우와 함께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이삭에게 반복되고 야곱에게 반복된 모든 약속된 축복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식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다신교 문화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한 약속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이삭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때때로 조상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삭일 수도 있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수많은 경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 주님이 이 다섯 책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천사가 말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그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임을 확신시키기를 그분, 즉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능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베엘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반복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즉, 임재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전개하신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자리에 오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의 손이 여러분의 눈을 감겨줄 것입니다. 음,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야기는 끝날 것이며,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이집트로 데려가려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방식에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죽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50장에 설명된 대로 요셉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야곱도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자신의 귀환을 감독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장사가 일어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야곱의 경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은 그의 뼈가 반환되고 그의 몸이 반환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요청에 따라 요셉은 그를 가족 장례식장과 묘지, 미틸라 동굴에 묻었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히 하기 위해 야곱은 창세기가 끝나기 전에 장사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나중에 장사될 것입니다. 그는 애굽을 떠난 포로들과 함께 끌려가서 결국 가나안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갑니다. 7절 끝에는 그의 자손이 다 거기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이디어는 온 가족의 생존입니다. 그 후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포괄성이라는 주제를 보아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이 낳은 아들들의 명단인 이 족보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 목록을 설명합니다. 이는 약속의 성취, 가족의 증식, 앞으로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수가 너무 많아 바로의 눈에 위협이 될 만큼 그 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량 학살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이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70은 그리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점은 이스라엘의 조상 전체, 즉 12지파의 조상들이 모두 애굽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런 종류의 생존, 보호, 공급, 그리고 기반, 즉 가족의 대번식의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합의가 있습니다.

먼저 레아의 이름, 그 소생, 그 처녀 실바, 라헬, 그 다음 빌하의 이름이 있습니다. 각 항목 뒤에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숫자를 모두 더하면 15절에서 33절, 18절과 16절, 22절과 14절, 그리고 25절에서 또 다른 7절로 시작합니다. 모두 합쳐서 70절이 됩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26절, 그 수를 보면 70이나 66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자 곧 그의 직계 자손은 그 아들의 아내를 제외하고 모두 66명이었더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포함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66과 70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실제로 더 일찍 발견되었습니다. 46장 12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죽은 우르와 오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을 빼면 68이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보십시오. 이집트에서는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세어보지 않으면 68에서 66으로 갑니다.

나는 이것이 아마도 66년과 70년의 차이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 번째로 뛰어난 인물인 유다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순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요셉이 구세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가족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46장 28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중재자인 요셉의 묘사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앞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 오고, 야곱도 바로 앞에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시 파라오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은 오히려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구절들이 46장 28절과 47장 12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외국인,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이것은 창세기를 통해 사실이었으며 이 사람들이 고센을 받아 그곳에서 번성할지라도 그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이것이 미래 지향적인 것을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의 혈통과 고센에서 그의 가족의 번영을 보고, 요셉이 죽은 후에 직접 돌아와 약속의 땅 막벨라에 장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12지파를 멸망시키고 생존의 장소로 데려왔고 고센에서 번성했습니다. 고센은 축복받고 아름답고 최고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의 땅, 즉 이집트라고 불리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돌아와 그곳에서 거주지, 즉 가나안에 영주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시다시피 이전의 모든 일은 국가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오경에 나오는 히브리 민족 이야기의 전체적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28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 고센으로 가는 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에게 탁월함이 주어졌습니까?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힌트가 있고 49장에서는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염두에 두신 왕족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임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왕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자 왕족의 가문에 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9절에서 이 모든 세월의 별거 끝에 요셉과 야곱이 재결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팔을 끼안고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분리를 경험하지 않도록 감히 서로를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30절, 이스라엘 곧 야곱이 이르노라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네가 아직 살아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음이니라. 글썄요, 사실상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요셉과 재회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그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시므온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율법에 따라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이 있고, 늙은 시므온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28절,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다. 그는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음이니 이는 주께서 모든 민족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므로 이는 이스라엘의 구주요 모든 민족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데려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의 가족의 직업에 관해 바로에게 설명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32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여기서 기초를 다지고 바로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목자들이다 . 그들은 가축을 치고 양떼와 소떼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포괄적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바로가 너희를 불러다가 그 형들에게 묻는 것이니 너희 직업이 무엇이나? 당신은 당신의 종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서부터 목축을 했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고센 지방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받게 될 것이다. 고센은 가장 축복받은 땅,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좋은 땅의 일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요셉은 고센이 자기 가족의 손에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6장에서 마지막 절이 말하듯이 그것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고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을 모두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분리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 민족이 자신의 영토를 갖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집트인과의 통혼을 통해 민족적으로 혼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집트 문화를 채택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그 신들.

그래서 여기서 염두에 두는 것은 야곱과의 화해 재결합 이후에, 31절에서 그가 형들에게 강대한 바로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47장에는 1절부터 6절까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서 바로에게 1절부터 6절까지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여기 있고, 내 아버지도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가 있어요.

바로 47장에서 형제들을 심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다섯 사람을 선택하였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다른 기회에 탐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형제 중 다섯 명을 선택하여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는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목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 큰 흉년 때문에 가나안을 떠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센 땅을 요구합니다(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네게 왔고 애굽 땅이 네 앞에 있느니라.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 정착하게 하라. 그러므로 요셉이 바로의 집과 애굽 온 나라와 나라를 위하여 행한 일로 말미암아 추수감사절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고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그들에게 영토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 왕실 가족을 맡게 함으로써 이집트 문화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실제로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요점은 그들이 파라오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7절부터 12절에서 바로 앞에 나아간 야곱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둘 사이의 놀라운 대화입니다.

이 연로한 야곱이 있다는 사실과 바로가 실제로 야곱을 향해 복종하는 정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다소 놀랍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주목하십시오.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의 표시는 야곱이 바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과 온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서 그가 바로에게 축복을 내리니 이것이 바로 이 축복의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인 야곱을 통해 모든 나라에 미치도록 의도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 곧 이스라엘 자손을 증으로 삼을 나라가 여기서 애굽과 모든 나라를 향하여 예정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존중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130년 동안의 순례 여행에 대해 말하는 9절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세월은 짧고 힘들었으며 내 아버지들의 순례 기간과 같지 않다고 그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브라함만큼 오래 살지 못합니다.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였더라.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민족의 노예였던 포로들에 대해 이야기되었을 때 얼마나 놀랍고 격려적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한다면 해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도 충실을 유지한다면 더 높은 목적, 즉 그들이 수행해야 할 고귀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오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광야에서 살아남아 그 땅으로 들어간 그 세대에게 족장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

그래서 19절에서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설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거주했던 특정 장소를 찾는 곳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또,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지역인 람세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람세스는 오늘날 우리가 카이로로 알고 있는 곳에서 북동쪽으로 65마일 떨어진 곳에 건설된 지역이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정되고, 물건이 공급됩니다.

극심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매우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13장 끝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는 요셉의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방식에 기초하여 바로에 의해 확실히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신들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바로의 눈에 그는 매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증거 중 하나는 그분의 행정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며, 그의 왕국과 행정을 조직하는 데 있어 그의 지혜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과 부, 소유, 그리고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것들은 많은 지혜와 인정을 보여준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통치 초기 부분인 13절부터 19절까지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기근이 진행됨에 따라 진행 과정에서 세 가지 단계를 발견하게 되며, 요셉이 풍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관리한 방식의 결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기근의 해에. 그러다가 14절에 보면 요셉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던 대가로 모든 돈을 거두어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중보자, 자기 가족을 위한 중개자,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바로와 백성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여 구매함으로써 곡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왜 당신의 눈앞에서 죽어야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우리 돈이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식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생존하다가 이제 2단계(16절)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파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이 말했습니다. “네 가축을 가져오너라. 네 돈이 없어졌으니 내가 네 양식을 팔아 네 가축과 바꾸리라.” 그러므로 요셉은 공급자, 즉 백성을 보존할 전달자로서 간주됩니다. 이제 그들은 가축을 모두 잃습니다

. 하지만 어떻게든 교환해야 하고, 생존하려면 가족을 교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요셉이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관점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그가 그들의 생존의 원천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인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동시에 파라오의 집에 책임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지나면 18절로 넘어갑니다. 그 해가 지나자 그들은 다음 해에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 몸과 땅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단계는 우회 노예화입니다.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곡식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파라오에게 노예로 바쳤습니다. 즉, 그들은 일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제공하는 전부입니다. 19절,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망하게 하리이까? 우리와 우리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을 주고 우리와 우리 땅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씨를 주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땅이 황폐하게 되지 않게 하라 하였느니라. 즉, 땅을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 감독할 수 있는 인구가 없다는 사실 덕분에, 비록 이 대기근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수가 미미하더라도 야생 황무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엔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거래는 우리에게 모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요셉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거래가 그에게 개인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를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위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기근은 끝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집트 제사장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 20절부터 31절까지의 지시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사제들과 이것은 우리가 성경 외의 이집트 문화에서 알고 있는 것 중 하나이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생존자들을 부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 지역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절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백성을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버전에서 찾을 수 있는 대체 읽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본은 NIV처럼 히브리어 21절을 번역하여 사람들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변형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은 번역될 것이고 그는 사람들을 도시로 옮겼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그 땅은 파라오의 것이 됩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일꾼을 가져야 할 것인데, 그것은 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의 예외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미래의 수확을 위해 씨앗을 심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기근이 해결되면 땅이 황폐해지고 비생산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확물의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할당되었습니다.

자, 25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와 요셉과 백성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요셉과 그의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요셉에게 “당신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마지막 부분을 46장 28절부터 시작하여 47장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은 요셉이 가정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는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생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것이 되기 위해 생산된 모든 것의 오분의 일에 관한 이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야곱 집안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에 관해 내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요셉에게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유다에서 위대한 왕의 인물이 나올 것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될 것이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 십자가, 무덤,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보내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한1서 4장, 전도자 요한이 쓴 이 작은 편지 요한1서 4장 14절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요한이 삼년 동안 자기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증거한 것이니라. 아브라함 가문에 약속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27절과 그 장의 끝인 31절에서 우리는 약속의 반향을 봅니다.

그들은 생육이 심하고 고센에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음에 대해 듣게 됩니다. 즉, 야곱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데 눈을 떴습니다. 그가 파다나 아람(Padana Aram)에서 20년을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전에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그와 그의 가족은 다시 추방당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가 파멸을 당하고 에서를 학대하고 도망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 때문에 그의 눈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매장지인 막벨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에게 나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거든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그들이 묻혀 있는 곳에 장사해 주십시오. 네 말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맹세코, 그는 말했다.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자 이스라엘은 지팡이 위에 기대어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어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침상 머리맡에서 몸을 굽혔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가 숭배하는 표현뿐 아니라 문맥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야곱이나 야곱 이스라엘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예배를 표현했습니다. 그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보니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라니 놀랍습니다.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고센에 사는 사람들이 번영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밧단아람에서 베델로 데려가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브엘세바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48장에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여기 그가 지팡이 꼭대기에 기대어 있을 때의 시가 있습니다. 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은 49장에서 야곱이 죽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29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장에서는 야곱이 막벨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과 50장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요셉의 죽음과 그의 아버지가 그의 미래 후손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돌아가라, 나를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라. 다음 회기인 48장부터 50장은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책 전체의 마지막 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 번영, 보호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며 이스라엘의 희망이 하나님께 헛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요셉과 함께 아버지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Kenneth Mathews 박사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4회기, 요셉과 야곱의 재회, 창세기 46-47장입니다.